

‘디자인 도시 광주’ 세계에 알린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기간 국제행사 잇따라 열려

亞문화장관회의·한상대회 등 시너지 효과 기대

2013 광주디자인비엔날레(9월6일~11월3일) 기간 동안 ‘동아시아 문화장관회의’, 2013 세계한상대회 등 주요 국제행사가 잇따라 열려 ‘디자인 도시 광주’와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세계에 알리는데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 각국 문화장관이 디자인비엔날레 개막식에 참석하고, 세계 각국 바이어들이 디자인비엔날레를 둘러볼 예정이어서 세계의 이목이 광주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광주비엔날레재단과 광주디자인센터,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9월6일 광주시립미술관에서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10개국 문화장관과 유진룡 문체체육관광부 장관이 참석하는 ‘한·동아시아 문화장관 회의’가 열린다.

10월 2~4일에는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국내·외 기업 250여 곳이 참여하는 ‘2013 국제광산업전시회’가 진행된다. 10월 10~13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2013 디자인 코리아’가 개최된다. 국내·외 300여개 기업에서 1200여명의 바이어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3 제12차 세계한상대회’(10월 29~31일)에는 40개국 3000여 명(해외 1000명, 국내 2000명)의 기업인들이 참석한다. 대회장을 맡고 있는 흥명기 미국 드라코트사 대표를 포함해 재외동포 기업인들이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기간 광주를 찾는 것이다.

각국을 대표하는 문화장관들이 디자인비엔날레 개막식에 참석하는 것은 대회사상 최초로, 디자인비엔날레가 명실상부한 국제행사로서 이미지를 굳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각국의 문화수장들이 대거 참가

하는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도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오는 9월 27~29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에는 각국 문화장관과 문화도시 시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이들은 광주회동을 계기로 문화교류·협력 방안 등 다양한 문화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대행사로 열리는 ‘유нес코 무형유산보호협약 10주년 국제회의’에는 48개국에서 250여명의 문화관련 인사들이 참석한다.

10월 2~4일에는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국내·외 기업 250여 곳이 참여하는 ‘2013 국제광산업전시회’가 진행된다. 10월 10~13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2013 디자인 코리아’가 개최된다. 국내·외 300여개 기업에서 1200여명의 바이어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3 제12차 세계한상대회’(10월 29~31일)에는 40개국 3000여 명(해외 1000명, 국내 2000명)의 기업인들이 참석한다. 대회장을 맡고 있는 흥명기 미국 드라코트사 대표를 포함해 재외동포 기업인들이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기간 광주를 찾는 것이다.

각국을 대표하는 문화장관들이 디자인비엔날레 개막식에 참석하는 것은 대회사상 최초로, 디자인비엔날레가 명실상부한 국제행사로서 이미지를 굳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각국의 문화수장들이 대거 참가



지난 31일 광주시 서구 라마다 호텔에서 열린 ‘2013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참여 작가 및 주요 작품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영혜 총감독이 양영완 흥익대 교수가 페트병 등을 활용해 만든 음료잔을 강운태 광주시장, 이용우 광주비엔날레재단 대표이사, 장상근 광주디자인센터장 등에게 소개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2013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기간 광주에서 열리는 국제행사

행사명	기간	참석자
한·동아시아 문화장관회의	9월5~6일	11개국 문화장관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개막식 참석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9월27~29일	한·중·일 문화장관, 문화도시 시장 등 100명
2013 국제광산업전시회	10월2~4일	국내·외 기업 250여곳 참여 예상
2013 디자인 코리아	10월10~13일	국내·외 300여개 기업, 바이어 1200여명
2013 세계한상대회	10월29~31일	40개국 기업인 3000여명

도록 관광 프로그램을 만드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올해 광주의 전통성, 지역성, 공

의 디자인 제품’을 소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구상이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행사기간

집중적으로 국제행사가 열립에 따라 그동안 20만~29만명 사이에 머물던 디자인비엔날레 입장객도 30

만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또한 광주 출신의 한류스타 가수 유노윤호가 광주비엔날레 홍보대사로 임명돼 6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을 찾는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본 등 해외 팬 수천명이 광주를 찾기로 해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흥행에 한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우 광주비엔날레재단 대표는 “광주시와 함께 각국의 행정가, 바이어들이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둘러볼 수 있는 관광, 전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며 “올해 대회는 어느 때보다 뜻깊은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kki@kwangju.co.kr

인도와 한국이 유력한 것으로 외신들은 보고 있다.

인도 대회는 정부가 지원을 소극적으로 하는 데다 대회 관전을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 등에게도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문제로 내년 일정을 취소하고 2015년에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외신 보도는 한국족과 개최권료 인하 협상을 진행중인 FOM족에서 일부로 흘렀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FOM측은 지난 2011년 협상때도 한국대회 개최 불투명 등의 정보를 흘려 외신들이 이를 받아 보도한 적

이 있다.

이에 대해 F1대회 조직위는 개최권 인하 협상을 진행 중인 베니 회장의 ‘압박성·발언’에 기초한 추측 보도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F1대회 조직위 관계자는 “애초 FOM과 2010~2016년 대회를 개최하고 5년 연장할 수 있도록 협약이 돼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다”며

“FOM 측이 협상전략의 하나로 한국대회 탈락 가능성을 흘렸을 수 있었지만 내년에 대회가 개최되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내년 F1코리아 불투명” 외신보도… 조직위 “어불성설”

AFP-유럽전문지들 “한국 제외 가능성” 조직위 “FOM 협상전략”

내년 F1 코리아 그랑프리 개최가 불투명하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라 배경에 관심이 쏟고 있다.

1일 F1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AFP는 지난달 29일 정치·재정적 문제로 내년 한국과 인도 대회 개최가 위협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버니 애를레스톤 F1 매니저먼트

(FOM) 회장이 최근 열린 형가리 부다페스트 대회 기간 양국이 내년 대회를 주최하는 데 회의적 반응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한국 대회는 처음 개최한 2010년부터 적자가 쌓였지만, 자치단체는 이를 회복할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

고 AFP는 덧붙였다.

유럽의 전문지들도 한국 대회 제외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올해 19라운드를 펼치고 있고 내년에 20라운드 개최가 예정된 가운데 오스트리아 대회가 복귀하고 미국 뉴저지, 러시아 소치도 개최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3곳이 추가되면 제외돼야 할 2곳은

인도와 한국이 유력한 것으로 외신들은 보고 있다.

인도 대회는 정부가 지원을 소극적으로 하는 데다 대회 관전을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 등에게도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문제로 내년 일정을 취소하고 2015년에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외신 보도는 한국족과 개최

권료 인하 협상을 진행중인 FOM족에서 일부로 흘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FOM측은 지난 2011년 협상때도

50년 전통 대를잇는 한의원

북경당 한의원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클리닉

제3분기 분석기 도입·체지방분해 침·시술, 고주파·자방분해·시술

한의학 박사 박상준 원장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진료문의 062)227-7575

*대한의협회 의료광고심의법 제080130-증-2696호

신협대출

한도는 캐피탈만큼! 금리는 은행만큼!

담보대출 - 한도 25억원

- * 상가대출
- * 아파트대출
- * 원·투룸, 나대지 대출
- * 임대 전세보증금 대출
- * 차량대출
- * 기타대출

신용 / 정책자금대출

- * 영세기업자 특례보증 - 2,000만원 한도
- 자영업자 핫살론 - 2,000만원 한도
- 자영업자 신용대출 · 일일상환 대출

- * 직장인 핫살론 - 1,000만원 한도
- 직장인 신용대출 · 마이너스 대출

낮은금리로 원하는 대출을 필요하신 만큼!
친절한 상담으로 최고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 본점 | 궁동 예술의거리 010-3603-7981

| 금호지점 | 금호지구대 옆 010-4948-2882

| 풍암지점 | 풍암초등학교 앞 010-3642-6142

전남도 경영평가 ‘신용보증재단’ 최우수

11개 출연기관 조사… 경영시스템 등 평가 성과급 차등 지급

전남신용보증재단이 지난해 전남도 출연기관 경영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남도는 1일 11개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한 2012년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16개 출연기관 가운데 재정이 소규모이거나 공무원이 파견된 기관은 제외됐다.

경영성과(50%), 경영시스템(30%), 리더십·전략(20%) 분야로 평가한 결과, 전남신용보증재단이 최우수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다.

전남신용보증재단은 유일하게 3년 동안 지자체 지원 없이 자립 경영을 했고 보증공급률, 보증사고율, 대외변제율 등 경영지표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남도는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경영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다등급 이상 기관 직원들에게는 성과급을 10% 이상 지급하도록 하는 반면 라등급 이하 평가기관은 성과급을 한 푼도 주지 않도록 했다.

또 그동안 매년 출연기관 운영부족 액을 차별없이 출연금으로 지원했으나 내년 출연금은 경영부족액에 평가 등급별로 차등 조정률을 적용해 고부토록 했다. 조정률은 등급별로 가 100%, 나 99%, 다 98%, 라 97% 등이다.

경영성과 분야에서는 전남신용보증재단, 경영시스템 분야에서는 전남테크노파크, 리더십·전략 분야에서는 전남발전연구원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전남신용보증재단은 유일하게 3년 동안 지자체 지원 없이 자립 경영을 했고 보증공급률, 보증사고율, 대외변제율 등 경영지표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남도는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경영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다등급 이상 기관 직원들에게는 성과급을 10% 이상 지급하도록 하는 반면 라등급 이하 평가기관은 성과급을 한 푼도 주지 않도록 했다.

그동안 매년 출연기관 운영부족 액을 차별없이 출연금으로 지원했으나 내년 출연금은 경영부족액에 평가 등급별로 차등 조정률을 적용해 고부토록 했다. 조정률은 등급별로 가 100%, 나 99%, 다 98%, 라 97% 등이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광주시의회 세계수영대회 진상조사

행자위, 임시회 소집

서 관계자들을 출석시켜 진상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